

## 오피니언

## 데스크시각

김주정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산사에서 유명한 상송 '고엽(Les feuilles mortes)'을 7가지 버전으로 들려주겠다는 스님의 약속에 가슴 설레는 가을입니다. 이 노래는 프레데르의 시에 조셉 고스마가 곡을 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국민배우이자 상송가수 이브 봉땅(1921~1991)이 영화 '밤의 문'에서 처음 부른 뒤, 공연의 히트를 쳐 세계 각국의 수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한 명곡입니다. 미국에서는 'Autumn Leaves'라는 곡명으로 빙 크로스비가 노래했으며, 1955년에 윌리엄스의 피아노 연주가 실린 레코드가 막판 장이나 팔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수들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낙엽, 자기 희생의 극치

"낙엽이 무수히 나뒹굴어요/ 주억파미련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은밀하고 변함없는 내 사랑은/ 항상 미소 짓고 삶에 감사드린답니다...."

아름답던 지난날 낙엽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노랫말에 이브 봉땅

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쳤나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다. 다시 경제위기가 온다 하여 어수선하기만 한 이 가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찾는 것은 소임을 다하고 떨어지는 일사구에서 자기 희생의 극치를

## 떨어지는 것은 아름답다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과 햇빛을 한껏 받아들이고 떨어진 뒤에 썩어서 거울이 되는, 그래서 결국 향기로운 꽃을 다시 피워내는' 낙엽은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기대 때문이겠지요.

작가 황선미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성인들에게까지 인기리에 읽히는 것도 이런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 짐작합니다. 주인공 '앞쪽'은 이제는 알도 제대로 놓지 못하는 양계장의 폐계(廢鵝)지만 알을 품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용감하게 닭장을 나와 죽제비의 술한 공격과 다른 닭, 오리의 구박을 이겨내며 청동오리 알

용기와 헌신이 돌보여서였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말합니다. 그들의 자기희생이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한층 더쳤다는 것입니다.

50% 지지율을 갖고서도 5% 지지에 그친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교수, 타이거즈의 영광을 재현하며 계약기간 1년이 남았는데도 자진 사퇴한 프로야구 조범현 KIA 감독, 경우와 처지가 다르긴 하지만, 이들도 숲이라는 공동체의 번성을 위해 아낌없이 나를 버리는 낙엽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청동오리 새끼 대신 자신을 죽제비의 먹이로 내주면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영웅은 더 큰 박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엘런 존슨 설립프라 이베리아 대통령(72), 라이베리아의 평화 운동가 리며 보위(39), 예멘 여성운동가 타우와를 카르만씨(32) 등 '여걸 39!'에게 해 노벨평화상이 주어진 것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비폭력 평화운동을 편

하지만, 낙엽의 삶이 모두에게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두 달 있으면 집권 마지막 해인 5년 차에 접어드는 이명박(MB) 대통령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인간힘을 쓰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 “레임 덕은 외로울 뿐”

퇴임 후에 기거할 사저를 짓겠다며 내 고통에 아들 땅의 향기를 매입했다가 편법이라는 여론의 질타에 밀려 백지화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과 청와대가 지분을 나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을 산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에 달통한 강남 북부인들도 그 깊은 뜻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사실상 아들의 세금을 대신 내준 의혹에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편법증여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청와대에도 낙엽은 떨어지고 있겠지요. 그곳의 주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허허로운 상념에 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념 중에 '다리를 저는 오리' 레임 덕(lame duck)이나 날개를 다친 청동오리는 무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흘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집국 선임기자〉jjnews@kwangju.co.kr

## 시설

## 여수세계박람회, 교통·숙박대책 서둘러라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여수시내 교통망과 환승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국비가 일부만 반영된 데다 숙박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시내 교통문제 해결 수단으로 시내 진입 차량을 외곽 6개 환승주차장과 인근 55개 임시주차장으로 유도해 관광객을 박람회장까지 셔틀버스로 수송, 시내 교통난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교통 대린'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람회 기간 중 여수를 찾는 승용차가 하루 최대 6만 2755대에 달해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 대란'도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특히 가운데 승용차 3만 3448대가 관광차 시내를 진입할 것으로 예측돼 55곳의 임시주차장(2만 2000면)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셔틀버스 운행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

## 도를 넘어선 광주경찰, 시민이 신뢰 하겠나

경찰의 제면이 말이 아니다. 인천에서 심야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유혈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경찰과들이 장례식장으로부터 시신 안치를 맛가로 뒷돈을 받는 등 그야말로 만신창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경찰의 일탈행위도 도(度)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4일 동부서 소속 최모 경사가 북구 양산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여주인을 폭행해 입건됐으며, 지난 10일에는 북부서 정모 경사가 동구 대인동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들에게 적발됐다.

동부서 경찰관 1명과 광산경찰관 3명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현재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동부서에선 올들어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불·탈법이 이 정도니 한심하기 짙어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저질 경찰관들이 시민의 친안

을 막아왔다는 게 분노마저 치민다.

광주경찰은 경찰관의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강 확립을 입증처럼 되풀이 해왔다. 그렇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회귀하는 '1회성 행사'에 그쳤다. 음주사고자에 대해 강등과 정직 3개월, 성매수 경사는 정직 3개월과 전보 조치라는 중징계를 내렸지만 또 다시 내부 사건이 터지면서 공염불이 된 것이다.

경찰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본분을 망각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자성과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 비리 경찰관은 재발 방지 차원의 영구 퇴출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동안 숨방망이처럼 비리의 악순환을 키우지 않았는가. 또한 보직 및 타경찰서 순환 등을 통해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 無等鼓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는 난립한 도시국가 간 갈등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의 한 젊은 여성 리스티스트라테(Lysistrate)는 오랜 전쟁과 남자들의 무능함에 열중을 느끼며 여자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성적 보이콧(Boycott)을 시도한다.

적군인 스프라타 측의 여인들과 아군의 여자들이 결속해 '폭력밖에 모르는' 남자들이 화평조약을 맺을 때까지 남자들과의 잡자리를 거부하자는 것이다. 여자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마침내 힘을 모아 아크로폴리스에서 농성을 하게 된다. 부부간 금욕생활이 계속되면서 결국 더이

상 참을 수 없게 된 앙진영의 남자들은 하는 수 없이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여자들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기원전 411년에 초연된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리시스트라테'의 줄거리다. 부드러운 여성의 힘으로 남성의 폭력성을 이겨낸다는 이야기다.

평화를 염원하는 극작가의 공상이 불

과같 뿐이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 한 명인 리며 보위(39)가 그 주인공이다. 라이베리아 출신의 아프리카 평화운동가인 그녀는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내전이 끝날 때까지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말자'는 운동(The sex strike)을 벌였고,

기독교도와 무슬림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남성을

이 층을 버리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서도 최근 300여 명의 여성들이 정부가 도로를

포장해줄 때까지 남편과의 잡자리를 거부하는 '다리 고기' 시

위를 통해 20년에 걸친 속원사업을 해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갯머리 송사'라고 불리는 은밀한 섹스 스트라이크가 다른 나라에서는 공연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니 이제 봅니다.

/총영기장부처장 redplane@kwangju.co.kr

## 기고



## 산단업체 악취 줄이기 의지 필요하다

2004년 악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악취 민원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은 2008년 111 건, 2009년 134건, 2010년 1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광주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체의 결속력이 저하되고 시민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악취는 기상여건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순간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내 사라지고,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단의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냄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대부분이어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대기오염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던 악취는 경기도 시화공단,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단지 주변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갑작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국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폐적

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반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산업활동권역과 주거생활권역이 서로 인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환경 민원, 특히 악취 민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악취는 기상여건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순간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이내 사라지고,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단의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 냄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대부분이어서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대기오염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던 악취는 경기도 시화공단,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산

업단지 주변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갑작오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농기계 도로 떨어져 사고위험...경운기 운전 주의했으면

이어에 뾰족한 쇠날을 밟을 경우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날수 있다. 승용차만의 사고라면 타이어 폴크 후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와 내부 탑승자가 다칠 수 있고, 만약 뒤따르던 차량이라도 있었다면 연쇄 충돌 사고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농촌 지방 국도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는

한국환경공단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지원도 실시한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원에서는 2010년에 보다 효율적인 악취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현재 가장 악취문제가 심각한 하남산단을 대상으로 악취물질발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장별 주요 악취유발물질들을 추정해 내기도 하였다.

광주시에서는 단기적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 대책방안으로 문제 산업단지의 악취관련 기초자료 전수조사 실시와 이를 토대로 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산단과 주거 지역 경계면에 악취방지 녹지대 조성 등 악취물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업체의 개선의지가 꼭 필요하다. 관의 끊임없는 노력과 민의 개선의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악취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행복 광주 공동체 건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며칠 전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온 길이었다. 한적한 지방 도로이다 보니 느긋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됐지만 농촌 도로이기 때문에 금작스런 농기계 출현이나 가축이 나타날지 몰라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운전을 했다.

예상했던 대로 승용차 헤드라이트에 경운기가 더딘 속도로 달리는 게 보였다. 기리가 1km쯤은 끼워보였기에 더욱 속도를 줄이며 혹시 추월할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며 서행 운전을 했다.

그런데 경운기 바로 앞에까지 다가가는 순간 급정거를 해야만 했다.

탈탈거리며 달리던 경운기 짐칸에서 길이가 1m가 넘어 보이는 뭔가가 도로 위에 그대로 떨어져 나뒹굴었고 그 직전에 나는 차를 급제동했다. 하지만, 경운기는 그 특유의 소음 때문에 짐칸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앞으로 계속 달려나갔다.

만약을 위해서 자길 쪽으로 차를 세운 뒤 그 물건이 떨어진 곳에 가서 봤더니 다른 아닌 끝날이 앗고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곡괭이였다. 이게 길바닥에 떨어진 걸 모르고 타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 光州日報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자자·국제/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